



9月24日(水)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 筆 田榮澤

聖句

너희가 서로 사랑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13:35

基督教世界觀이 要請됨

偏狹한 分派分爭은 禁物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표현도 하라는 것은 아  
니면서, 행위를 이루라는 것  
이 아니라, 구제적으로 우리의  
나라에서 몸서리치게 전개되  
고 있음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참상을 다시 이  
기지 아니하고 바라는바 평화  
로운 한개의 세계를 이루기 위  
하여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릴 것이다.

推進되는 世界的理念

오늘의 세계에는 이 평화경  
을 구상하는 두가지 움직임이  
있다. 그 하나는 정치 기구를  
동원 시키는 방법에서 연구  
하는 세계연방정부운동이다.  
삼천리만도리고 부르는 땅에서  
남인과 북인 동인과 서인 백  
제나 신라나 고려나 삼국이  
나 하면서 활을 예고 말하고  
혹은 종을 세우고 가라고  
영기거리던 때는 삼천리가 멀  
었고 큰땅인줄 알았으나 세계

世界的 使命을 覺醒

에큐메니칼 運動을 活潑히

한개의 세계 실현 설비도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영혼을 길러주고  
생기를 채운 기본문제는 사  
과 신앙으로 말미암은 세계  
민을 하나되게 하는(취(一)의  
문제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세  
적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독교는  
세계가 이같이 구상하고 요  
할때 그 사명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본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오한 시일을 거러왔다  
제2차대전 끝난후에도 이들

結論(韓國과 基督教)

이렇게 기독교 본래의 사  
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운동 전개하여야 한다. 한국기  
교회는 운동도 이같은 견해와  
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말로만

社說

在日僑胞에 對한  
敎會의 使命

일본에 있는 교포들 六十  
만이라고 치면 그 가운데  
대다수는 전에 우리와 일본  
이 교유이 편할때에 제주도  
와 그 밖에 경남 각지에서  
노동과 장사를 위하여 이민  
해 온 이들과 전쟁의 희생  
이 되어 징용으로 왔다가  
이내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  
러 있는 이들이다. 우리가  
지금 제일 교포문제를 가지  
고 논하는 대상은 이 사람  
들이요, 지금 일본정부에서  
머리를 얹고 있는이도 이부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저  
들에게 대한 우리 교회의 책  
임을 생각해 보고자한다.

2

이상에 말한 교포들은 우  
선 문화적으로 떨어지고 교  
육이 없는 이들이 많았다. 그  
래서 아모리 현대 교육과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이땅  
에 있으면서도 혹은 특수부  
락을 이루어 살고 혹은 늘  
유동생활(流動生活)을 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감화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종『독수종족』의 대우를 받

고 이주한 세상의 사정을  
해온 이들이 많았다.

결국 일본에서는 편이 되  
고 괴롭혀지는 원지언정『내  
백성』이라는 따뜻한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하였고 그 문  
화와 교육도 완전히 받지 못  
하였으며 해방후에 본국에서  
힘있게 진행된 한국 국민으  
로써의 새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혀 당시의 뒤떨어진 정  
도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가정생  
활과 인행에서 특히 그 미  
신적 행사에서 볼수있다.

3

해방후에 교포의 교육운동  
과 정치 운동이 맹렬이 전  
개되었으나 결국 좌우익이

갈라서 무력해지고 교육기관  
은 좌익측에서 겨우 계속하  
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교포들의 교육과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좌  
우 양측의 단합을 받아서 계  
속할수도 없거나 계속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  
라도 맡겨줄수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대  
부나 원단에서도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방  
면에도 믿고 있을수없다.

4

대개 민중을 지도하고 교  
육하는 데는 반드시 종교적  
으로 지도하여 그 심령을  
깨워서 먼저 사람되는 길을



# 미쓰로즈宣教師



로-즈 선교사

미쓰로즈 선교사로 한국에서  
 삼십년 동안 사역하든로-즈  
 은 그 동안 당시(동경)에 재  
 유하면서 한국에 들어가기  
 가라고 있다가 최근에 미군  
 사령부에서 한국에 입국하  
 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출  
 발준비 중인데 양은 기자의  
 말에 파거의 반성을 회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고향은 캐나다 동방

할리팩스라는 곳입니다. 내가  
 한국에 온 것이 1921년  
 내가 바루 스쿨에서 살리는 해  
 9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합  
 용에 몇해있다가 성전으로  
 가서 보신학교 교정으로  
 4년동안 일하다가 다시 회령  
 에 4년동안 있었읍니다.  
 그후에 함흥으로 옮겨서 1  
 941년 전쟁이 남미까지 전  
 도사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  
 때에 뜻밖에 전쟁이 터져서  
 귀국하여서 8년동안 있었는  
 그때에는 참 떠나기 싫은것을  
 분물을 올리면서 할수없이 떠  
 났지요. 본국에 가 있는 동  
 안은 공무도 하였으나 한동안  
 남미의 트리나다에서 선

교사로 일하였읍니다. 그리고  
 해방후에 (1949년) 다시  
 돌아와서 서울에서 겨우 일년  
 안 일하다가 다시 사변을 당  
 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여 한국  
 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2년동  
 안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하는동안  
 북쪽은 만주까지 교회있는데는  
 안가본데가 별로없읍니다. 무한  
 을산으로 삼수 감산으로 정령  
 장전으로 간도로 불림으로 혹  
 은 차를 타고 혹은 말귀를타  
 고 돌아다녔읍니다. 한가지  
 볼수없는것은 내가 가장 사랑  
 하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로  
 함흥에 김경순씨가 지난번 공  
 산당 침략때에 그사람에 손에  
 죽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1935년 안식년을 이용하여  
 성지 팔레스타인을비롯하여 세

개일주 여행을 한것은 유쾌한  
 기억입니다.  
 본국의 가족으로 말하면 8  
 15세 된 노모님이 아직 살  
 아계셔서 애동생이 모시고 있  
 습니다.  
 그동안 동경서 지내면서 교  
 회와 YMCA와 선교사 여러  
 분의 많은 사랑을 받은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입  
 국하게 된것은 여간 기쁘지  
 아니합니다. 부산에 있으면서  
 기독교 교육회의를 도아서 한  
 국교회의 종교 교육사업을 어  
 국 협력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성령에서 그동안 본  
 보에 많은 경험을 주신 호의  
 를 감사하여 한국에 가서서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축  
 을받아 건강하시고 성령하시기  
 를 빌어마지나합니다.

## 韓日親善日を決定 FOR第二回大會에서

일본R.O.C 제2회대회는 지  
 난달 19일부터 2일간 관  
 단서학대학에서 열렸는데 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 하  
 였다. (1) 기독교평화주의의 근본  
 적원리 (2) 국제정세와 일본  
 의 라도 (3) 전범(戰犯) 석방문  
 제 (4) 저일본 한국인문제 (5) 혼혈아  
 (混血兒) 문제등에 대하여 구  
 체적 문제를 세웠다는데 재  
 본 한국인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의 현상으로 보아서 남제

송환을 한다는것은 저를을 사  
 명(死政)에 미러 넣는것과  
 같은 일인즉 이 일본 반대하  
 고 저를 조선인을 원조하기위  
 하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은  
 반드시 저를을 친구로 사귀자  
 따라서 일한 친선일(日韓親善  
 日)을 정하고 실천에 노력하  
 자 하였는데 기독교자들 한국  
 인문제를 정면에서 취급한것이  
 처음인 만큼 주목되는바 있다

### 四面의總會公告文 注意해주시요

인도해주어야 할것이니 여기  
 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거니와 단순하고 무학한이  
 들을 유혹하는 죄의 사람의  
 손을 막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적하고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백복된 길을 걸게하고 민족  
 적으로 국민적으로 (사상적  
 으로) 바른 노선을 걷도록  
 하는것은 온전히 우리교회  
 의 책임이 아닐수없다. 현재  
 대 교회에서는 좀 적극적  
 발걸음 계획을 세우고 사람  
 의 손을 피서 그들의 참된  
 「이슬」의 새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교회의 태  
 도는 너무 냉정 무관심 했  
 다고 할수있다.

### 信仰職制會議報告 (2)

첫날 즉 17일은 주일이  
 었으나 대표들은 시내 다  
 회당에들가지 아니하고 오전 1  
 0시부터 대교회에서 합동예배  
 를 드렸다. 이날 선교자는  
 니그렌 감독이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성전」이라는제  
 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서 성전과 어떤 관계를 가  
 졌으며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 하였던가를 말하고 그  
 리스도교의야 말로 그리스도  
 의 성전이라고 사회는 우  
 리자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선교는 평범 하였으나 니그  
 렌 감독의 인격에서 오는  
 감명은 적지 아니 하였다.  
 선교후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백성의 대표가 주의 성  
 전에서 성찬에 참가한다는것  
 은 숭엄한 순간이었다.  
 이날 오후는 귀교 란부터  
 회의에 드러났다. 하이델베루  
 히大學 교수 슈링크씨의 「신앙  
 직제운동의목적」(信仰職制運動  
 의目的)이라는 내용 요은  
 감언이 있었다. 요수는 현대  
 를 가르쳐 주게 심판받고있  
 는 시대라고 말하고 신앙직  
 제운동은 신앙의순수를 지키  
 러는 중대한 역사의 임무가  
 있는것이라고 청중에게 호소  
 하였다.  
 ★ 八月十八日 안개 많은 북  
 극의 하늘은 맑게 개였다.

### 人事

- ◎로-즈女宣教師 九月二十九日 OAT로 釜山行
- ◎스피츠카이牧師(강리교宣教師) 九月十五日發 釜山歸任
- ◎金泰烈長老 九月十八日 本社來訪
- ◎金熙振牧師 美國留學次九月十九日橫濱發



완연히 가을  
 이다. 등불을 켜  
 하여 글을 읽  
 을 좋은 시절  
 이 되었다. 종  
 용히 독서하며  
 교묘히 명상할  
 때로다 이때를 놓치면 어찌  
 을 읽으랴. 명상과 반성도 이  
 때에 하자

본국있는이런 목사에게서 「목  
 서를 하고 공부를 하여야될터  
 일대(그렇지않으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낙오자  
 가될터일대) 본국에서는 책을  
 읽수가 없으니 좋은 책을 좀  
 구해주시오」하고 간절히 부탁  
 하는 편지가왔다. 이런 목사님  
 은 양심적이고 성의있는 사람  
 이다. 이런 목사에게는 책이없  
 는것이 문제지마는 대체로 있  
 는책도 읽지 않은것도 야단  
 이다.  
 ★ 어떤 젊은 친구는 「동경있는  
 동안에 어학공부를 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하겠다」고하  
 고 어떤 실업가는 「앞으로 국  
 제무대에서 무역을 하려면 영  
 어를 하여야될터이니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말  
 을 들었다. 일단하지말고 이때  
 에 하루바삐 시작을 하시오.  
 ★ 어떤 양반은 명함에 소위  
 「가다가끼」(肩背)를 여러가  
 지 죽 늘어놓아서 세상일은  
 혼자서 다 하시는지 모르거나  
 와 아무리 바빠도 그런이도  
 이때에 책을 좀 읽고 반성을  
 하는것이 좋은길.  
 이때에 성경을 읽고 반성을  
 하라 추수때가 가까왔으니 결  
 열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보  
 시라.



# 反省과發展하는報告 「在日韓國Y夏令會」

대방후 七년간 저일본 한국YMCA는 때때로 일본서 개최되는 국제적회합에 우리대표를출 주전하여 보았던 것이다.

금년에는 YMOA 자체의 주최로 하당회를 열고 국제 회합에 참가하였던 우리학생들의 보고를 듣기로 하고 九月二二일인 요르스카 사무시마에 집회를 열었다.

이하의 보고는 그때 보고의 일부인데 기독교학생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바라는 결론의 감명으로 민족적 긍지있는 적극적 활동에 호소하는바가 적지아니하다. (Y)

## 積極的活動과信仰的反省

### 韓國Y學生運動에期함

明治學院 徐容泰

요컨대 도-잔소(柳殿湯泉) 그 다음해에는「현대 세계와」(山莊)하기학교는 금년이 제六기종교 신앙이라는 주제하에「十一회」였는데 내용적으로 보아 하나님과 현대에 대한 요청을 도 일본YMCA는 성숙된 감이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후 일본YMCA의 하기학교를 도라보면「성숙感」이 났다는 뜻은 알수있을 줄 안다. 패전후 처음 열린 하기학교는 제五회(一九四六)였는데 혼돈된 현실에「기독교 학생 생활의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독교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무엇을 행할것인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 基督教青年學徒의課題

### 問題理解를爲하여

牧師 金元治

지난 여름에 청년 학생들이 YMOA의 후원으로 여러가지 국제적 회합에 참가하고 그날 우리끼리 모여 반성을 한다는 것은 크다란 의의가 있는 모임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었다.

더욱히「기독교청년학생들의 과제」라는 중심문제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은 이번기회를 통하여 기독교청년 학생 운동이 크게 전향되기를 바란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 시대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음은 우리 각자는 사실인데 그리스도교에게는 어떤방향을 향하고

## 反省할問題

우선 교회와 청년과의 사이에 걸려있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주어 의논하여보자. 교회측으로 말하면 청년 학생들에게 내일 을 기대한다. 오늘날의교회는 내 일의 세계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관점에서 우리민족 일한적 지식수준도 이해하여야 될것인 동시에 내일 미래(未來)의 교회에는 가능하다는 점진적 이 해도 하가자야 할것이다.

## 韓日問題도새로認識

### 小倉市運動場캠프에서

千葉工大 李英雨

내가 참가한 곳은 九州小倉市였다. 캠프에는 외국인네명과 일본인 十九명으로 여자도 몇사람 섞여 있었고 우리의 일터는 씨명야구장 스랜드공사였다.

저녁 도착하여 할만것은 시성에서 캠프 三十명이 울것으로 예상하고 일한노동자와 같



아마가나키 캠프

國際友愛로完成  
實踐的信仰이要求  
千葉商大

이와같은 문제는 교회와 청년 학생간의 문제들의 초점에 가운것의 하나이다. 우리는 더욱히 시기와 현담의 습성을 가진 백성이 었기에 이런 초점은 크게 반성하고 화합하여 서로 도우며 건전한 발전을 하야 할것이 금후의 책임있는 과제(課題)인줄안다.

서두에서 나는 세계는 새세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우리의 과제를 명확할가한 다.

세계는 하나이 되려한다. 기



중 어느 한사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

우정(友誼)은 더욱 깊어져서 일의 성과상으로 보면 기계 문명이 수도로 발달된 오늘에 원시적 노동할 학생들의 것이 아니 표현할것조차 아니될 것이었다는 그 속에 매겨진 그 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 형제자매들의 인격적 사 랑이 담겨있다는것은 노동일금 으로 표준할수 없는것이 있었 다.

우리나라 재건에도 물질문명 기계적건설이 요구된다라는 하 나님의사당의 역사가 금수강산 산간 광연에 차고 넘쳐기 바 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없다. 예를 들면 새금은 물의 직업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는 등을 설명 하였다.



교구라 캠프

# 都市보다農村에有効

村上經 康仲 일

일본에서 월크캠프가 시작된 것은 一九四八년부터였으나 四 해 지방에서 열리기는 금년이 처음이었다.

장소는 에히메현마쓰야마시 무라가와 가미무라(愛媛縣松山市村上上村)였고 참가자는 미 국인들과 한국인들 외에는 남북에서 모여온 일본사람으로 전원은 二十四名의였다.

우리의 일본은 매일六時四十分에 해돋이하고 일출이오 八時(八時水曜)를 맴도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일출 일몰주변에 화상하기로 예정하고 계획적으

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것이 아닌가싶었다.

오후에는 캠프근처 부락에 가서 어린이들을 모으고 성령 이야기와 노래와 게임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아이들에게서 우 리는 그 순수한 세계를 오늘 의 싸우는 인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우리 캠프들의 목적도 그런 세계건설에 있다는것을 재인식 하였다.

때로는 시민들과 관공리주회 측과 타당하는 시간도 있었는 데 그들의 기록에 대한 현 관에 새로운 재인식과 깊은 관심을 이뤘다고 본다.

이번 캠프에서 이런말을 두 세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캠프중에서도 자기들의 일방적 견문에서 오래되었던것을 이번 에 잘 알았다고 말하며 한국 과 일본의 평화적 제휴는 우 리 기독교청년학생회게 있는것인 죽이 일을 위하여 노력하자 는 약속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것은 이같은 국제회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재일본한국YMCA 는 주선하고 참가자에게 본국 정세자정을 건설적으로 설명하 여 충분한 재료를 주기를 바 라며 참가자도 평민외교자로 스사로 인식하고 우리없는 교 제를 하면 보람이 있을것이 라는 점이다.

로 작업을 진행한바 한주간내 에 완성하여 관계자들을 놀라 게 하였다.

삼주간의 남는 두주간은 가 와가미초립중학교 배수공사(排水工事)와 운동장 정리작업을 하였던데 그 일도 예정을 세우고 진행한바 노동의 피로는 있었으나 피차가 염증없는 일 할하였다.

전생애에 누구나 경험한 일 이지만 경제적 근로용사에 비 하여 우리는 믿음에서 자전한 우리었다는 점과 계획적 투로 에서 실증보다 즐거움이 그속

에 있었던것은 수년간 몇번참 가한 그 어느캠프보다 인상에 남는 월크캠프였다.

## 信仰과勤勞는一致였다

靑雲開拓場에서 梶山高校 姜點善



姜점선

여름 방학 사이에 무엇을 하고 지낼가 하던차에 일본전 국 고등학교생 위크 캠프가 있다고 하기에 반은 호기심에 참가할 결심을 하였습니 다

기간은 七月二十三日부터 八月七日까지였고 장소는 야마 나시현 고후시의(山梨縣甲府市外)였습니 다.

자업장은 세이운(靑雲) 개척 지 도로공사장이 었는데 일로 생각하면 부락민이나 노동자들 의 할 큰 작업장이 었으나 우리 캠프의 주회측의 목적은 『관람객이 많은 인간이 되기 위한 훈련』에 있었기에 곤란 은 느껴 지지 않았습니 다.

우리 캠프대원은 여름에도 뜨거운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다는 혹가이도(北海道)에서 온 친구로 부터 겨울 눈(雪)이 싸인것을 모른다는 나가사 기(長崎)까지의 남녀고등학교 생二十五명이 었는데 디렐라 두분과 전속목사 한분을 합 한二十八명이였고 그중에 여학생은 十二명였으며 여자 디렐라가 한분이 있었습니 다.

일터에서는 일나富士山이 둘러서서 나이 어린 우리들의 일 짐을 맡아 없이 격려 하는듯 하여 뜨거운 햇 빛에 정신이 나서 쾌이들 휘돌 었습니 다. 이런일은 날마다 조 반후 여섯시간씩 하였는데 농 부와 노동자들의 수고를 알듯 이 땀을 흘렸습니 다. 땀에 목 저온 옷을 벗고 몸을 닦은후 에 식탁에 앉았으면 우리들

에도 동정적 이해를 갖게 하 였던것으로 본다.

은 원망 없이 우습 보자기를 더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 습니 다.

각 개인의 자유로운데는 몸 시 뜨거운 오후시간이 었는데 간혹잠도 자지오라는 근처아 이들을 찾아 모으고는 이야기 하는 등 두 남의 세력을 하는 등 무 목적탐에 볼 때이는 도 부 근심 열려하는 부모에 편 지쓰기 호러지 하우를 만 화로 소식을 그리는등 참말 반 화같은 화악한 생활이 었습니 다.

밤이면 성경연구회 토론회 반성회, 기도회등이 번가라 열 렸는데 성경은 전속목사님과 함께 읽어 논의하여가고 토론 회는 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 론 하는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면 기독교청년회교제 같은 문제는 흥미가 있었습니 다.

반성회는 매 주일함에 열리고 따라서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 다.

메크레이슈시간에 저더러 하리당과 도라지 타령을 하라 고 하기에 한국말도 잘 못하 는 나는 진땀을 빼었습니 다 마 는 이렇게 피차 흥미를 더치 고 지낼수 있었던 일은 이저 지지 않습니다. 각 지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특이한 방언 흥내는 더 한층 친근케 하였 습니 다.

이번 캠프에 나로서는 새로 운 체험을 얻었으나 다만 저 의 신앙생활 연령이 어린때문 에 신앙적 발달성이 부족 하 었더니 유감될 뿐이고 허무러 진 우리나라 재건에 이 같은 운동이 널리 일어나기 바랍니 다. 재건이라는 일이 무겁지않 고 반가울로 즐겨운 현실에서 왕성 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단계에서 당면한 문제의 신학적인 하나 남밖에 세움을 받은 인간이 라는 주제를 끌고 교와대학 과사회의 三部門에 나뉘어 형 의는 진행되었다.

사회면에서 본다면 헛거를 걸 천것 같으나 기독교 학생 운동의 사에 세워놓고 보면 온전한 전진을 한것입니다. 다시 말하 면 올바른 신앙에 굳게서서 현실사회를 바로 보자는 입장 을 취하는데 이른것이다.

바라건대 우리나라가 전한때 문에 혼란상태라 할지라도 전 전한 전진과 냉정한 비판과 무중한 격려가 피차에 있어 전

# 韓日問題도 새로認識

## 小倉市運動場 캠프에서

千葉工大 李英雨

내가 참가한 곳은 九州小倉市였다. 캠프는 외국인 네명과 일본인 十九명으로 여자도 몇사람 섞여 있었고 우리의 일터는 씨영어구장 스랜드공사였다.

다만 못하지 아니한 재건이 있으리라는 것을 전하고싶다. 온 노동운동 표준으로 작업루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었다. 몇달을 지난후 우리는 지도자에게 항의를 하고 푸로그랍을 변경하여 오전에 시영운동장을 작업하고 오후에는 근방민촌 아해들에게 전도 동화등을 하고 나중에는 빈민촌 아동 운동장도 다 깨주었다. 시

영운동장 일보다 모든 캠프는 이 일에 종을 느꼈다. 나 는 우리나라 재건에 이런 운 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지도자들의 일상적이 아닌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없다. 예를 들면 새금은 불의 직업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 말을 드론 어떤 영리한 관리는 「과거를 피차 반성하고 금후로는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서로 노력하여보자」고 하였다.

# 國際友愛로 完成된公園

## 實踐的信仰이 要求되는社會

千葉商大 李鐘旋



아아가사끼 캠프

나는 아아가사끼(尼ヶ崎) 캠프의 한사람이었다. 우리 재건의 관서공회도시 연합아에서 대나무(竹)를 캐간하여 공장지에 아동유원지(兒童遊園地)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우리 재건회는 오후나와 미 국 일본 한국의 四國 기독교 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총회는 영의(英)였다.

우리나라 재건에도 물질문명 기계적인것이 요구된다. 하 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금수강산 산간 들에 차고 넘치기 바 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問題의焦點

이와같은 문제는 교회와 청년 학생간의 문제들의 초점에 가 까운것의 하나이다. 우리는 더 욱히 시기와 천담의 습성을 가진 백성이 옳기에 이런 초 점은 크게 반성하고 화합하여 서로 도우며 건전한 발전을 하여야 할것이 금후의 책임있 는 과제(課題)인줄안다.

독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 의 세계에 三百여파의 푸로테 스탄트는 사회와 문화면에는 공헌이 있었을는지? 예수의 「하나이 되라」는 말씀에는 배척된듯 하다. 이것을 깨달은 두 어깨에 질머지워 있는것이 다. 그러나 그것은 미지수에 있기때문에 젊은이들께 안심할 수 없이 되어 있는것이 현상 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오늘의 더욱히 청년 학생들은 이런 교회축의 의도 와는 판 생각을 하고 있는것 을 지적 아니할수없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교회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설교에만 충실하되 학교강의와 같은 설 교만 바라고 철학 문학 과학 에서 감당에 역문을 바라는것 이다. 이런 기대가 남녀노소 각계각층에 관해된 교회현을내

영운동장 일보다 모든 캠프는 이 일에 종을 느꼈다. 나 는 우리나라 재건에 이런 운 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지도자들의 일상적이 아닌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 都市보다農村



교구라 캠프

일본에서 월크캠프가 시작된 것은 一九四八년부터였으나 四 해지방에서 열리기는 금년이 처음이었다.

장소는 에히메현마쓰야마시 무라가와 가미무라(愛媛縣松山市村川上村)였고 참가자는 미 국인들과 한국인들 외에는 남북에서 모여온 일본사람들도 전원은 二十四名の였다.

우리의 일은 매일六時에서 에히메현립 결핵요양소 저수지(貯水池)를 댈드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일을 일주일간 계속 완성이기로 예정하고 계획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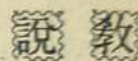
세계는 하나이 되려한다. 기

이와같은 문제는 교회와 청년 학생간의 문제들의 초점에 가 까운것의 하나이다. 우리는 더 욱히 시기와 천담의 습성을 가진 백성이 옳기에 이런 초 점은 크게 반성하고 화합하여 서로 도우며 건전한 발전을 하여야 할것이 금후의 책임있 는 과제(課題)인줄안다.

영운동장 일보다 모든 캠프는 이 일에 종을 느꼈다. 나 는 우리나라 재건에 이런 운 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지도자들의 일상적이 아닌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영운동장 일보다 모든 캠프는 이 일에 종을 느꼈다. 나 는 우리나라 재건에 이런 운 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지도자들의 일상적이 아닌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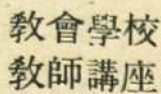
哀訴聲

福岡教會牧師 李宗憲

의 회회파와 의사대로 행동울  
위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전  
도자가 움직일 때는 첫째는  
주님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할  
것과 둘째는 불쌍한 영혼들의  
술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 불  
쌍한 참경을 보고 행동할것이  
오, 자기의 사유으로 하지 말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생  
활을 위하여 그 위에 모든  
자기의 사유에서 움직이지 않  
고 주님께만 충성되게 행하  
지이다. 아-멘 (말)

(1)

|         |         |         |         |         |         |         |         |
|---------|---------|---------|---------|---------|---------|---------|---------|
| 이<br>뜻이 | 대<br>답과 | 세<br>하던 | 지<br>혜와 | 좋<br>으나 | 도<br>정면 | 도<br>참고 | 과학적인    |
| 하나      | 그       | 자       | 능       | 마       | 다운      | 사람      | 이론      |
| 님       | 위       | 연       | 력       | 치       | 잔       | 으로      | (科學的理論) |
| 앞       | 력       | 의       | 을       | 까       | 유       | 서의      |         |
| 에       | 앞       | 의       | 자       | 지       | 의       | 의       |         |
| 앞       | 에       | 님       | 금       | 금       | 정       | 자       |         |
| 드       | 고       | 을       | 하       | 까       | 신       | 존       |         |
| 리는      | 개       | 위       | 요       | 지       | 도       | 심       |         |
|         | 를       |         | 한       | 의       |         |         |         |
|         | 술       |         |         | 사       |         |         |         |
|         |         |         |         | 람       |         |         |         |



指導順序의 根本問題 (9)

魯安理

|         |       |       |        |
|---------|-------|-------|--------|
| 어<br>면  | 순둥부   | 학생    | 하나가    |
| 교회당     | 정면    | 벽에    | 칠을 새로  |
| 할       | 필요가   | 있다는   | 제안을 하  |
| 였다.     | 교사는   | 이     | 좋은 기회를 |
| 노치지     | 않고    | 주의    | 깊은 자극  |
| 과 지시로   | 다음    | 같은    | 커구들    |
| 하게 하였다. | 교회란   | 무엇인   |        |
| 가?      | 교회는   | 공동체에서 | 어떤     |
| 지위를     | 차지하는  | 것인가?  | 교회     |
| 는       | 어떻게   | 유지되는  | 것인가?   |
| 교회에는    | 어떤    | 준비가   | 필요한    |
| 가? 등.   | 그리고   | 그다음에  | 교회     |
| 의 모형을   | 만들었다. | 학생들은  |        |
| 만장일치로   | 그     | 만한    | 모형     |
| 자기들의    | 교실을   | 지어    | 넣      |

---

|       |        |         |      |
|-------|--------|---------|------|
| 기를    | 결의하였다. | 다른      | 교우   |
| 교회에가서 | 견학도하였고 | 서적      |      |
| 참고한   | 연구도    | 하였다.    | 그    |
| 리고    | 모금을    | 하여      | 자기들의 |
| 교회의   | 정면     | 벽을      | 개장할  |
| 회까지   | 하였다.   | 어떤      | 주일날  |
| 아침    | 교회     | 어른들     | 예배   |
| 그들은   | 자기들이   | 이때까지    | 하    |
| 여운    | 경파보고를  | 하고      | 모금한  |
| 것을    | 교회에    | 바쳤다.    | 두말할것 |
| 없이    | 전교회가   | 이       | 미거를  |
| 단하고   | 협력하여   | 교회는     | 새우   |
| 울     | 입게     | 되었던것이다. | 일총파  |
| 지하설도  | 깨끗이    | 소제되었다.  |      |
| 중등부는  | 교회에서   | 새로운     | 소    |

유관심(所有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학교를 물문하하고 부마다 좀더 그 설비를 개척하고 싶혹 하는것인데 여기에서도 그 관심이 일어났다.

이 사실은 특별한 형편이 면전에 보여서 발생한 것이나 보통 주일 공부과정을 기도하는것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돌돈 교안에 따라서 진행될것이지만 그러나 교유의 유일한 목적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있음은 변할수 없는 철칙이다. 좋은 교안이 있으면 교사의 수고를 많이 줄게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그 남은 여력을 다 기우쳐서 학생의 생활에서 안의 내용이 적용할수 있게 쓰는 것이다.

한 시한 교회의 고등부에 있는 예수의 미유를 배우게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그

유를 잘 알고 있어 평소부터 천자(親愛)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평면적으로 배우게 하지는 않았다. 비유는 아름다운 문장을 일뿐더러 오늘날의 생활에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결코 평면적 공부에 시종할 것이 아니었다. 교사는 혼자서 대담으로 비유 연구를 하였다. 관복을 대조표, 예수전 예수 비유 연구 서적중 대표적인 것을 택하여 읽는 등 여러가지 참고서를 읽었다.

그리고 이 참고서들을 모 학생들의 도서관에 가져다 었다.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것이다. 공부가 진행함을 따라 클라 쓰는 이들 자료를 읽기 변으로 참고할 수 있었다. 이 같이 하여 가는중 학생들은 복음서에 따라서는 한가지



프랜씨쓰의 懺悔  
칸디의 同胞愛

마음속의 의욕과 비애와 압념  
 一應 을 품고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간 후 양심적 가책을 받  
 의판다 선생을 청하여 감연한  
 미곡과 평양 신학교에서 영도

|      |       |       |      |
|------|-------|-------|------|
| 검미한  | 마음은   | 가지기를  | 바람   |
| 나다.  | 물속    | 아름다운  | 꽃 한  |
| 송이를  | 가지고   | 무엇을   | 살아보  |
| 고    | 따져보고  | 분석해보느 | 라코   |
| 조각조각 | 뜯어뜯으면 | 그꽃의본  |      |
| 체는   | 참어버리고 | 그     | 아름다움 |
| 도    | 찾을 길이 | 없을것입니 | 다.   |

---

|      |       |       |       |
|------|-------|-------|-------|
| 원조나라 | (그룬비) | 같은    | 이는    |
| 말할것도 | 없고    | 영국의   | 유명한   |
| 치가   | (크롬웰) | 이나    | (글라즈스 |
| 같은   | 사람이나  | 또     | 미국의   |
| 은)   | 이나    | 『아부라함 | 린원』   |
| 같은   | 이는    | 단지    | 한     |
| 신님의  | 사람이   |       |       |
| 신앙   | 가였을   | 니     | 다     |

정을 가지고 뜻을 뜻대로 보아야 합니다. 병사가 용한 의사에게 무조건으로 자기의 병과 생선 전복을 내놓기듯이 어떤 것이든 어머니의 뜻에 자기 운명 전체를 맡기고 안심하고 잠들듯이 무조건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회당과 안식과 율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는 막대한 신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번은 참모본부의 한 대장이 린컨 대통령을 찾아서 병력의 부족함과 그 전쟁의 불리함을 보고하고 몹시 근심하는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코요히 파이불(성명)을 읽고 기도를 하고있던 린컨은 대연자양한 태도로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정의의 싸움을 하고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오 최후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아무 걱정말고 어서 진격을 계속하십시오』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유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관  
목음 대조표라는 것이 있는 것  
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성서의 원어(原語)는 헬라어  
라는 것도 미로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 비유마다 유경한  
화가의 에도를 가지고 설명하  
면서 연구하였다. 또 그 비유  
를 기초로 한 노래 시들도  
집하여 공부하였다. 그리고 자  
기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원수  
가 오리발에 잡초 종자들을 뿌  
렸다는 비유에서는 우리의 현  
대 생활에는 이런 잡초 종자  
가 뿌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또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이런 잡  
초에 대하여 어떤 태일? 의무  
를 가져야 할 것인가? 등을 생각  
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배알  
과를 칭찬하셨는데 우리의 일이

나. 동리를 미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리의 예매는 양  
의 비유로는 자연 동물의 중  
류와 그들에게 대한 애호 양  
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예배를 하는 계단에  
가서는 이렇게 연구한 비유의  
의미를 중심삼아서 예배를 하  
였다. 예컨대 바리새인과 세리  
기라 몇가지 비유를 연구으로  
하여 그것을 다 암송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  
여 각 학생은 이런 문화의  
지식과 감상(感賞)에 깊이  
뿌리박는 인격을 형성하여 갔  
다. 그 결과는 즉시로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에  
두었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주일과 모독날과  
의 사이에 한 동일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연승리는 권선예비 음악은  
거듭나다. 역사의 유혈한 자신  
사범가『조지, 물리』는 적수중  
권으로 오직 하나만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 능히 팔천영  
교아들을 하나같이 건강하게  
잘 길러 뒀다고합니다.

시라. 어떤 곳에 갑. 을 두 청년  
 이 불행히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진찰을 한 결과에 그  
 생명이 여섯달 이상 가기 어  
 려다는 선언을 받았습나다. 불  
 사형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  
 때에 한 청년 「갑」은 「내가 아  
 지도 여섯달은 더 살수있으니  
 감사하다. 여섯달이라는 시간에  
 깨끗하게 살았게 잘 살아야겠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란  
 속과 운동을 힘쓰고 주위 사  
 람에게 좋은 기분과 감화를끼

치고 힘써 남을 도와주고 하는 동안에 여섯 달이 어느덧 지나갔다. 평은 풀려가고 도리어 건강한 몸이 되었으나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쓰러져서 오직 을과 차승을 꾸리고 술을 마시고 할부로 지내다가 병세는 점점쳐서 여섯 달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 教役者問題

牧師 李鐘聲

(三) 신학생활 양상  
현대 시무중인 장로중 유능한자를 전도사나 혹은 전도인으로 채용할것 이상의 방편이있다. 그리하여 一九四九年 제五회 총회의의 교역자는 목사 삼인 전도사 五인이었다 당시의 교회수가 十五였다. 역시 교역자 부족은 곤란중 본국에서 목사수인이 와서 신학교를 졸업한자 중에도 목사, 전도사 시위를 받아 현재는 목사 十一인, 전도사 八인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二十이 되었으나 그보다 더는 현요, 전도소가 十五나 되는 현역시 교역자가 부족하여서 말할수 없는 곤난을 당하고있다. 어떤 교회는 본국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수년간이나 걸쳐 많은 비용까지 썼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여 교회안에 많은 파문을 일으킨 일도 있다. 그러나 교역자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수가 부족한것이 문제일뿐 아니라 그의 지적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이다. 지적문제라는것은 현목사 十一人승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한이는 수없이 지나지 않는다던가, 신학을 정식으로

유수히 하지못한 목사가 많고 또 성직취임후 불행한 처지에 놓여진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교회의 인건비가 급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보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신자들이 깨닫고 있는바와 같은 해결책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교역자 자신에게 있다. 교회일보다도 사회일에 유익을 풍는 그 마음을 버리고 쓸데없이 감정에 빠져서 신자와 대립하여 교회를 분열케 하는것을 버리고 성단을 인간적 취미의 무용실로 삼는 것을 버리고 복음에 저해되지 보다 세상일에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바르고 하여서 때때로 빠지는것을 버리고 가진 힘을 다 마쳐서 자녀 하나하나 죽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열매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어대 있은가?







것이다.

정음  
그  
이과  
박해  
현지  
글,  
글,  
문학

한 일이라고 속으로 느꼈지



A small, vertical,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in a military uniform, standing and facing forward. The image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text in the second column.



성은중 각교회  
닐취월장하옵심을

삼가 기도드리오며 본회 제 8 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울것을  
공고하나다.

一九五二年九月一日

在日本大韓基督教會總會長

吳允台

各教會貴中

(一)時日 一九五二年十月十四日午前

十時至十五日午後五時까지

(二)場所大阪市東成區大成通一の七三

在日本大韓基督教大阪教會堂

(三) 要請及注意件

1 敎務報告는 九月二十五日 까지 도

치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

2 總代名簿는 그地方會를 통하여

十月五日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

3 總會維持費當金（一九五二年度）

分 去年總會時決定된 것) 來會時

가  
고  
오  
슬  
가

△ 各教會 獻詩 樂은 可屬 地方會를

홍하의 저술한 글

名音 辛告 人 斗 豆 古

五二  
三

（第百三十三卷）十一月二日

日本國河津郡上野村

卷之十

후의  
고리를  
이리  
이리  
이리

五十三 慈會寺外記

주닐것

事務各事  
事務各事

하여 주실것